

제주대신문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와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자 하는 그대,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대에게
제주대신문은 같이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19일 금요일 제829호

1954년 5월 27일 창간 <격주간> ● 발행인 허향진 주간 이창익 편집장 박종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대로 66 (690-756) | 전화:754-2278~9(FAX 756-2204) | 인쇄:제민일보사

박사 31명 배출... 오늘 54회 학위수여식

인문대 홍창용씨 등 12명 총장상 수여



홍창용(사학) 최정환(국제법무) 이은미(경제) 윤여원(과학교육) 한경은(동물자원과학) 조기철(해양생산과학)
김연정(가정관리) 이혜진(컴퓨터공학) 이지현(의학) 고은주(수의학) 강하나(서양화) 양용재(분자생명공학)

제 54회 학위수여식이 오늘 19일 오전 10시 아라무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2008학년도 기졸업자를 포함해 1676명, 박사 31명, 석사 154명 등 총 186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에 앞서 교육대학 학위수여식이 지난 12일 오전 11시 사라켄퍼스 미래창조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사 165명 석사 17명을 포함해 182명이 졸업했다.

단과대별 졸업생 현황은 인문대 319명, 법정대학 222명, 경상대학 342명, 사범대학 141명, 생명대 86명, 해양대 144명, 자연대 231명, 공과대 283명, 의과대 65명, 수의

과대 53명 교육대 165명이다. 총장상 및 표창,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 ▶인문대 홍창용(사학과) ▶법정대 최정환(국제법무전공) ▶경상대 이은미(경제) ▶사범대 윤여원(과학교육) ▶생명대 한경은(동물자원과학전공) ▶해양대 조기철(해양생산과학전공) ▶자연대 김연정(가정관리) ▶공과대 이혜진(컴퓨터공학) ▶의과대 이지현(의학) ▶수의과대 고은주(수의학) ▶예술학부 강하나(서양화전공) ▶학생군사교육단 양용재(분자생명공학전공) 총 12명

▶총장표창 ▶공과대 오경남(건축공학전공) ▶해양대 임강석(해양생산과학전공) ▶해양대 신지수(토목환경공학전공) ▶법정대 이상섭(정치외교) 총 4명

▶학장상 ▶인문대 이현정(국어국문학), 오지혜(영어영문), 고민정(독일학), 원일수(일어일문학), 양은주(중어중문), 이성현(사학), 현지은(사회학), 이유나(철학) ▶법정대 고수연(법학), 현상수(국제법무), 김은정(행정), 강희찬(정치외교), 최성민(언론홍보), 김정수(법학, 야), 고승혜(행정, 야) ▶경상대학 송두원(경영), 백주영(관광경영), 임진이(회계), 김정웅(무역), 현민철(경제), 남현아(관광개발), 조유리(경영정보), 순현

주(경영, 야), 윤숙의(회계, 야) 이대은(관광경영, 야) ▶사범대 강선영(국어교육), 강요람(영어교육), 오은숙(사회교육, 사회), 문정자(사회교육, 지리), 문재희(울리교육), 부혜정(수학교육), 유우석(과학교육, 물리), 강혜순(과학교육, 생물), 김현석(컴퓨터교육) ▶생명대 교윤정(식물자원환경), 김동욱(원예과학), 황순희(동물자원과학), 조창언(응용생명공학), 허미주(분자생명공학), 김지윤(산업응용경제) ▶해양대 강은혜(해양생산과학), 김주호(해양산업공학), 김석현(토목환경공학) ▶자연대 김광휘(물리학), 조아라(생물), 고하나(화학), 정진이(식품영양), 백종현(수학), 부동식(전산통계), 고해미(가정관리), 김현아(의류), 김빛나(체육) ▶공과대 이득원(기계공학), 강봉숙(에너지공학), 윤정엽(메카트로닉스공학), 강기훈(통신공학), 한동균(컴퓨터공학), 강남호(전기공학), 양상혁(전자공학), 양재복(식품생명공학), 김경희(생명화학공학), 전봉준(건축공학), 조성진(건축), 안소현(멀티미디어디자인), 이진희(문화조형디자인) ▶의과대 김승기(의학), 김보람(간호학) ▶수의과대 조유진(수의학) ▶예술학부 송용환(서양화) 장수초(작곡·성악·피아노) 총 70명.

제8대 총장에 허향진 교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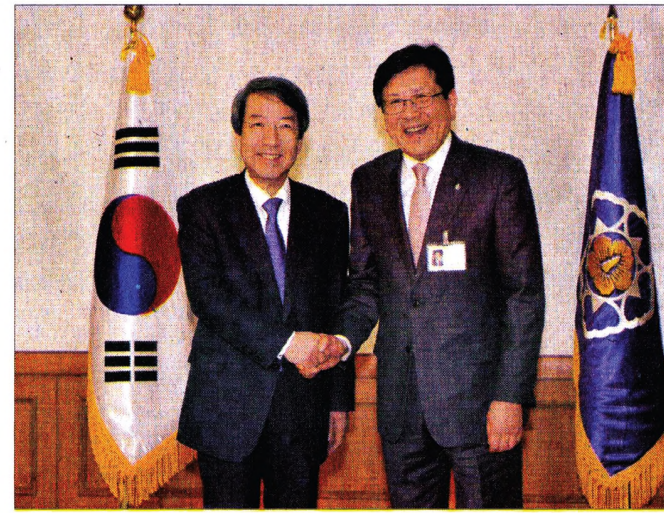
17일 임명장 수여... 오늘 학위수여식 첫 공식행사

총장임명 1순위 후보자 허향진(관광경영학과) 교수가 17일 제8대 신입 총장에 임명됐다.

허향진 총장은 지난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운찬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 의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모두 거쳤다. 임기는 17일부터 2014년 2월 16일까지 4년간이다.

허 총장은 19일 오전 학위수여식 행사부터 첫 공식업무에 돌입한다. 취임식 행사는 다음달 5일 예정돼 있다.

한편 허향진 총장은 1977년 제주대 관광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세종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내 보직으로는 관광산업연구소 소장, 평의원회 의장, 경상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허향진 신입 총장이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운찬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대의 활동으로는 동북아시아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자문위원과 제주지속가능녹색성장포럼 공동대표를 지냈다.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제주혁신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허 총장은 또 지난 2007년 7월 제5대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쳤다.

정용복 대기자

교무처장에 오성보 · 학생처장 김종훈 교수

기획처장에 강훈 · 산학협력단장 이호원 교수

18일 주요 보직교수 인사 단행

제주대는 18일 처장 및 단장급에 대한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 교무처장에 오성보 교수(전기공학과), 학생처장에 김종훈 교수(영어교육과), 기획처장에 강훈 교수(생물화학공학부), 산학협력단장에 이호원 교수(생명화학공학과)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통역대학원장에 이기석 교수(영어영문학과), 국제

교류센터소장에 강영훈 교수(행정학과), 직업능력개발원장에 박경린 교수(전산통계학과), 경영사업단장에 양성국 교수(경영학과)를 각각 임명했다.

부처장급 인사도 단행해 학생부처장에 허대식 교수(예술학부), 기획부처장에 김성업 교수(의학과), 산학협력단 부단장에 여인규(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를 각각 발령했다. 임기는 2010년 2월 18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2년이다.

사령

백중수(수학과 1), 수습기자로 임명함

학생생활관 사생자치위원회 모집

임원, 차기년도 우선입주권과 인센티브

학생생활관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입주학생자치기구(이하 사생자치위)가 만들어진다.

기초에 생활관 운영, 재정 등과 관련한 업무는 학생생활관장, 학생복지과장으로 구성된 생활관운영위원회가 전담해 오면서 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와 생활관이 사생자치위 구성을 위해 24일까지

임원을 모집한다.

자격조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 학생생활관에 한 학기 이상 거주하고, 타 자치기구 업무를 겸하지 않고,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생자치위 임원은 차기년도 학생생활관 우선입주권과 학생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임기는 1년이다.

(문의: 총학생회 754-2361)

외국어교육원, 마라톤 무료 첫 토익강좌

27일 오전 10시... 매일 정기토익 전일 개최기로

외국어교육원(원장 김선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원 강의실에서 무료 마라톤 토익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는 토익 전문강사인 임인재씨(정기토익 62번 만점)가 강사로 나서 토익응시생들에게 토익 전 파트에 걸쳐 단기간에 고득점 할 수 있는 비법과 시험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외국어교육원은 앞으로 매달 치

러지는 정기토익 시험 전일 토익 전 파트에 대해 무료 마라톤 강좌를 개최기로 했다.

이창윤 주무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토익 시험에 대비하여 시험 전일 재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마라톤 강좌를 열기로 했다"면서 "하루만에 50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754-2291~2)

2010학년도 제1차 외국어특별강좌

강좌기간: 2010. 3. 5(금) ~ 4. 15(목) (매주 월-금, 6주 30시간)
접수기간: 2010. 2. 17(수) ~ 3. 3(수)

수강신청방법: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http://fii.jeju.ac.kr>) 접속

수강료 입금 계좌: 농협 954-01-024722 (예금주: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 영어회화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Lever 1	1	Jay Ligon	오전 8:00~8:50	15	96,000원	Handouts
		2	Naomi Stanko	오전 9:00~9:50	15	96,000원	Handouts
		3	Ryan Brown	오후 6:00~6:50	15	96,000원	Handouts
		4	Jay Ligon	오후 7:00~7:50	15	96,000원	Handouts
중급	Lever 2	5	Naomi Stanko	오전 8:00~8:50	15	96,000원	Handouts
		6	David Martin	오전 9:00~9:50	15	96,000원	Handouts
		7	Naomi Stanko	오후 6:00~6:50	15	96,000원	Handouts
중·고급	Lever 3	8	David Martin	오전 8:00~8:50	15	96,000원	Handouts
		9	David Martin	오후 6:00~6:50	15	96,000원	Handouts
		10	David Martin	오후 7:00~7:50	15	96,000원	Handouts
고급	Free Talking	11	Ryan Brown	오전 8:00~8:50	15	96,000원	Handouts

▶ Writing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Basic Writing	12	Jay Ligon	오전 9:00~9:50	15	96,000원	Handouts
중급	Academic & Business Writing	13	Louisa Frank	오후 8:00~8:50	15	96,000원	Handouts

▶ 영어청취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중·고급	CNN 시사영어청취	14	오성철	오전 9:00~10:00 (월~목)	30	86,000원	유니텔, 동영상 및 MP3파일

▶ 문법/작문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영어문법기초 (Grammar&Speaking)	15	한영숙	오전 8:00~8:50 (월~목)	40	77,000원	Fundamentals of English Grammar
	영어문법기초 (Grammar&Speaking)	16	한영숙	오후 12:00~12:50 (월~목)	40	77,000원	Fundamentals of English Grammar
	영문법 처음부터 다시	17	임인재	오후 12:00~12:50	40	69,000원	All New Grammar Basics
중·고급	Grammar and Writing	18	한영숙	오후 6:00~7:50 (월~목)	40	154,000원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

▶ TOEIC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해커스 토익스타트 Reading	19	임인재	오전 8:00~8:50	40	69,000원	해커스 토익스타트 Reading
	6주완성 토익 기초다지기 RC	20	양윤정	오전 8:00~8:50	40	69,000원	토마토 Basic RC
	토익 기초완성	21	이정열	오전 9:00~9:50	40	69,000원	영시강독의 RC Basic
	해커스 토익스타트 Listening	22	임인재	오전 9:00~9:50	40	69,000원	해커스 토익스타트 Listening
	해커스 토익과 정기토익 풀이(전반부)	23	이정열	오전 8:00~8:50	40	69,000원	해커스 토익 RC + 유인물
중·고급	해커스 토익 리스닝	24	허성심	오전 9:00~9:50 (월,화,목,금)	40	69,000원	해커스 토익 리스닝 (전반부)
	토익 문법/어휘 단기간 완성	25	강계유	오후 6:00~6:50	40	69,000원	해커스 토익 RC
	모질게토익 이코노미 R/C 1000제 3	26	임인재	오후 6:00~6:50	40	69,000원	모질게토익 이코노미 R/C 1000제 3
	해커스 토익 Reading	27	임인재	오후 7:00~7:50	40	69,000원	해커스 토익 Reading
중급	최신 실전토익 LC	28	강계유	오전 8:00~8:50	40	69,000원	편집교재
	원종섭 토익 RC	29	원종섭	오전 8:00~8:50	40	69,000원	편집교재

▶ TEPS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중급	해커스 TEPS Reading	30	임인재	오후 5:00~5:50	40	69,000원	해커스 TEPS Reading

▶ 중국어/일본어/독일어

단계	강좌명	강좌번호	강사	강의시간	정원	수강료	교재
초급	중국어회화 시작 1	31	유소영	오후 6:00~6:50 (월~목)	20	72,000원	편집교재
초·중급	초중급 중국어 6주완성 어법정리	32	김미순	오전 8:00~8:50 (월~목)	20	72,000원	편집교재
중·고급	초중급 중국어 6주완성 어법정리	33	김미순	오후 6:00~6:50 (월~목)	20	72,000원	편집교재
초·중급	『漢語口語會話用語教程』으로 배우는 중국어	34	유소영	오전 8:00~8:50 (월~목)	20	72,000원	편집교재
초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초일본어 (기초문법6주완성)	35	조지영	오후 6:00~6:50 (월~목)	20	72,000원	편집교재
초·중급	에니메이션으로 배우는 평생 일본어 (한글의독이없는원어민의독)	36	조지영	오후 5:00~5:50 (월~목)	20	72,000원	편집교재
중·고급	유학독일어	37	장재윤	오후 5:00~5:50 (월~금)	20	90,000원	Alles Gute

** 무료특강 **

- 토익 무료 마라톤 특강(part1~7)
· 첫 번째 특강 2월 27일(토)!!
· 강사: 임인재(정기토익 62번 만점 강사)
· 시간: 매일 정기토익 전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영자신문 reading 특강
· 첫 번째 특강 3월 9일(화)!!
· 강사: 한영숙
· 시간: 특강 기간 중 매주 화, 목 오후 1시~2시

학위수여식사

소통하고 화합하는 리더십 갖추길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58년 성장속에서 무수한 가능성과 재능을 꽃 피워온 우리 대학의 선각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김태환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5만 동문 여러분! 신영근 기성회장님을 비롯한 학부도 여러분!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1,861명의 자랑스런 동창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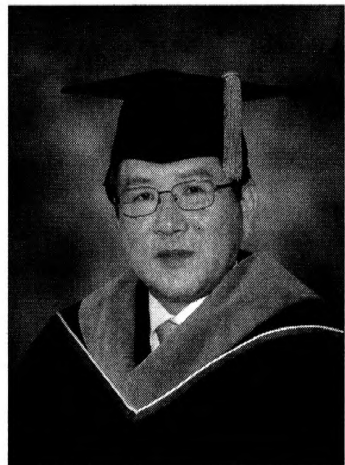
학부와 대학원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지식과 감성을 키우고 이제 거친 사회의 광풍대해 속으로 뛰어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여러분은 너무나도 훌륭하게 준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과정 속에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노심조사하시면서 뒷바라지 해 온 부모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배 등이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어떠한 형식이든 여러분의 가능성을 만드는데 동참하셨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1,861명의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롭게 길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저는 자신감이 라는 화두를 보냈지만 단단히 동여매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대학생활이라는 과거와 졸업이라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줄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빚어냅니다. 때로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불황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교에서 갖고 뉘어왔던 꿈과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도전 정신을, 여러분은 이미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개인과 국가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묶이는 21세기는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 도태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도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졸업은 학문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앞서가고 창의적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해야 합니다. 20세기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세기는 일신유일신 하는 자기연찬의 시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없는 두드림과 예리하게 다듬어진 아라비아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의 또 다른 자기연찬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님들도 일하며 다시 배우는 미래의 여러분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 것이며, 그것이 곧 보람이 될 것입니다.



허향진 총장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역의 대학이자 세계의 대학입니다. 세대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명품대학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원동력의 밑바탕에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자세로 세계인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생의 리더십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같은 리더십이야말로, 복잡다단한 시대에 여러분이 갖추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자 참여적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우리대학 동문들의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문 여러분, 제주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자 자랑스러운 인재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이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재능을 부탁드립니다. 든든한 동량을 키워내기 위한 우리 대학의 부단한 노력과 혁신도 지켜봐 주십시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여러분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이곳 제주대학교의 터전에서 일구어 낸 가능성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은 늘 상생과 나눔의 정신으로 행하십시오. 가능성이 꽃 피우는 아름다운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의 동문으로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원합니다. 내딛는 발걸음마다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올해도 등록금 동결... 고통분담 차원

중앙운영위, 등록금 책정방법 공개요구

등록금이 작년 이어 2년 연속 동결됐다.

제주대는 지난달 11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10학년도 기성회비를 2009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성회비는 연평균 352만7000원으로 전국 거점국립대학 기성회비 3%만3000원의 89% 수준으로 낮아 교육여건 개선, 대학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등 재정소요에 따른 등록금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대는 2009년도에 이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과 정부의 등록금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학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성회비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는 지

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의 동결에는 환영하는 한편, 등록금 책정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려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07년도까지 등록금책정방법은 당해 연도를 기준해 학년 단계별로 정해졌다. 그러나 08년부터는 직전학년도(학년 전) 기준으로 책정방법이 바뀌면서 실제 대학 예산은 늘었다.

정시모집 합격자 1955명 확정

2010학년도 정시 나, 다군 합격자가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나군 합격자 1141명, 다군 합격자는 814명으로 총 1955명이다. 합격자 중 재학생은 전체의 89.2%로 지난해

예를 들어 08년도 1학년이 134만5000원의 기성회비를 냈고, 등록금이 동결돼 2학년 때도 134만5000원의 기성회비를 냈다. 그러나 08년도 2학년의 기성회비는 129만원으로 실제로는 4.3% 상승했다.

지난해 등록금이 동결됐으나 실제로는 3%의 상승을 보였고, 올해도 3.4학년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올랐다.

강보배 기자

‘대학 5학년 많아진다’... 졸업유예제 확산

자기계발 의지가 관건

올해 졸업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대졸 미취업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취업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졸업유예제’는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이 학점을 신청하고 재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4학년 2학기 등록금의 일부분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졸업유예제가 처음 도입된 2006학년도에 14명이 유예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7학년도 47명, 2008학년도에는 76명이 신청했다. 3년 사이에 5배나 된 것이다.

2009학년도 전기 졸업유예 신청자는 64명이다. 8월에 있을 후기 유예 신청을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취업난에 유예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학과와 한 학생은 “졸업 후 백수로 남게 될 것 같아 유예신청을 했다”며 “지금 그냥 졸업을 하면 사회의 시선도 좋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사학과와 한 학생도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더 취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졸업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진배(직업능력개발원) 취업컨설턴트는 재학생 신분이 반드시 취업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 중에 기업이 재학생을 더 선호한다는 이유로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졸업 후 시간 관리와 자기계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졸업 예정자를 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

기업은 경력과 경험을 더욱 중요시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졸업 후 인턴, 아르바이트 등 사소한 경험이라도 이력서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경험과 성과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주대는 거점 국립대 중 최하위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졸업유예 신청을 줄이기 위해 취업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희 기자

인터뷰 - 글로벌 마케터로 선정된 ‘넛지’

“팀원 톡톡뭇쳐 이룬 결과... 자신감 갖는 계기”

“이번 경험은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었다. 소박하게 시작한 팀 ‘넛지(Nudge)’는 결국 일을 크게 내고 말았다. 이들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인 ‘에어스타 에비뉴’와 취업포털 커리어가 공동주최하는 ‘글로벌 마케터 2010’ 공모전에서 선발된 것이다. 넛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0만 원을 지원받아 1월 25일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으로 떠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항 서비스와 쇼핑환경 등을 체험하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넛지의 구성원인 현종석(경영 2), 이상훈(경영 2), 소유진(행정 3), 김소연(행정 3) 학생을 만나기 위해 아라홀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웃음바다가 돼 있었다. 인터뷰를 위해 두터운 책을 들고 나타난 현종석씨 때문이다. 그가 들고 온 책의 이름은 다름 아닌 ‘넛지’였다. 팀 이름과도 같은 말이다. 넛지의 뜻을 묻자 현씨가 대답했다. “사건적으로 ‘팔꿈치로 툭툭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미가 확대 돼서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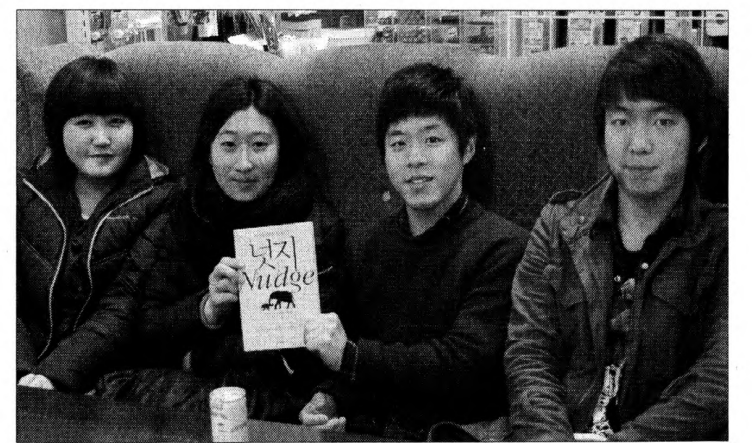
지 않게 상대의 선택을 유도하는 힘’이라고 쓰입니다. 바로 마케팅의 힘이지요.”

현씨의 말을 듣고 나니 마치 마케팅의 대가들을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학생들일 뿐이다. 현종석, 이상훈씨는 경영학과에서 이론적으로 마케팅을 배우긴 했지만 나머지 팀원들은 이론식조차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글로벌 마케터’로 선발될 수 있었던 것은 끈끈한 팀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어떤 팀은 사람이 많아도 개인의 실력을 다 합한 것보다 안 좋은 결과를 내놓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워낙 팀웍이 좋아서 개인의 실력을 합한 것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냈죠.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싸운 적이 한번도 없어요.”

더불어 피나는 노력도 한 몫을 했다. 직접 만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갖고 시간이 없는 날에는 온라인에서 모였다. 심지어는 합숙까지 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했어요. 교수님을 찾아 뵈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아직 선발 되지도 않았는데 스키폴 공



글로벌 마케터 2010 공모전에 선발된 ‘넛지’팀. 왼쪽부터 소유진(행정 3), 김소연(행정 3), 현종석(경영 2), 이상훈(경영 2) 씨.

항에 연락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이 내용을 기획안에 첨부하며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스키폴 공항에 갔을 때 당시 연락했던 직원이 공항 안내를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준비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팀원과 같이 있어서 재밌기만 했다고 한다.

“굳이 어려웠던 점을 꼽자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2차 심사인 P1발표를 하기 위해 12번이나 비행기를 탔는데 모두 사비를 털었

어요.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평범하기만 했던 이들 4명이 얻은 성과는 무엇일까? 이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4명의 인연은 공모전을 준비하며 더욱 끈끈해졌습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죠. 비슷한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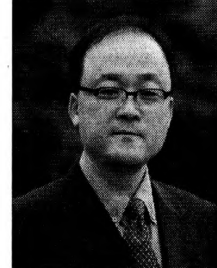
고용희 기자

박여성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박여성(독일학과) 교수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인터널드 2010년판에 등재됐다.

박 교수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학술활동과 대학 초청강연, ‘기호학 학술지’ 편집자 활동 등을 인정받아 인명사전에 올랐다.

한편, 박 교수는 지난 2007년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기호학회 공동 저명 국제학술지 ‘기호학 학술지’ 편집자 활동으로 비유럽 지역의 외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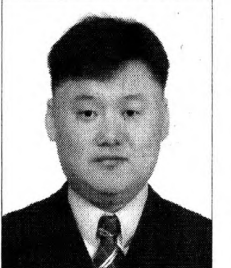
독일 인문과학 학술지 전체를 최초로 간행한 사례로 평가를 받는다.

조정원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

조정원(컴퓨터교육과) 교수가 2008년도에 이어서 2009/2010년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됐다.

조 교수는 공학과 교육 분야에서의 학술적인 업적과 활동을 인정받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한편, 조 교수는 최근 학술적인 활동이외에도 제주 물 산업 인재양성센터의 에듀유티사업에 책임지고 있는 트랙장으로 활동 중이며, 초중고에서의 정보교육활성



화를 위한 한국정보교육문화실천연합 활동 등 물 산업과 IT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양명환 교수 체육교육학회 우수논문상

양명환 교수(체육학부)가 제19회 한국체육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스포츠 선호와 참가여부가 스포츠가치에 미치는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한국체육교육학회와 체육진흥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학자, 대학원생, 학생이 참가해 모두 1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체육교육학회는 체육



교육의 발전과 한국의 체육문화창달에 기여를 목적으로 논문관련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정수연 교수 부동산분석학회 우수논문상

정수연(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상장 코스닥 기업의 임직이전결정요인과 임직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수상 논문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상장된 코스닥 기업들의 임직 경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임직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한편, 정 교수는 후속 논문으로



‘지식기반사업과 비지식기반사업의 기업임직, 기업들의 집적화의 생산성’이란 주제를 계획 중이다.

국가고시 전원합격

수의학과·간호학과

수의학과와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전원이 각각 제54회 수의사국가시험과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의학과는 2008년에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수의과대학으로 승격돼 첫 졸업생들이 100% 합격했다.

신태균 교수(수의과대학장)는 “힘든 과정을 묵묵히서로 도와가며 졸업예정자 전원이 합격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간호학과는 2002년 1회 때부터 올해까지 졸업예정자 전원이 합격하면서, 9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이번 수의사 국가시험과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대비 각각 94%, 93.1%로 합격률을 보였다.

백중수 수습기자

일체형 책걸상 학생불편 외면... ‘예산문제로’

분리형 책상 도입 검토

일부 단과대학에서 쓰이고 있는 ‘일체형 책걸상’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일체형 책걸상은 책상과 의자가 붙어있는 구조이다. 때문에 책상을 몸 가까이 당겨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의자 끝부분에 걸터앉는 불안한 자세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또 오른쪽에만 팔걸이가 있어서 오른손잡이가 필기할 때에는 팔을 걸칠 수 있지만 왼손잡이는 팔꿈치가 닿지 않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사범대학의 한 학생은 “책상과 의자 사이의 공간에 제한이 많아 움직일 때 답답하다”며 “책상 면적도 작아서 책과 필기도구를 다 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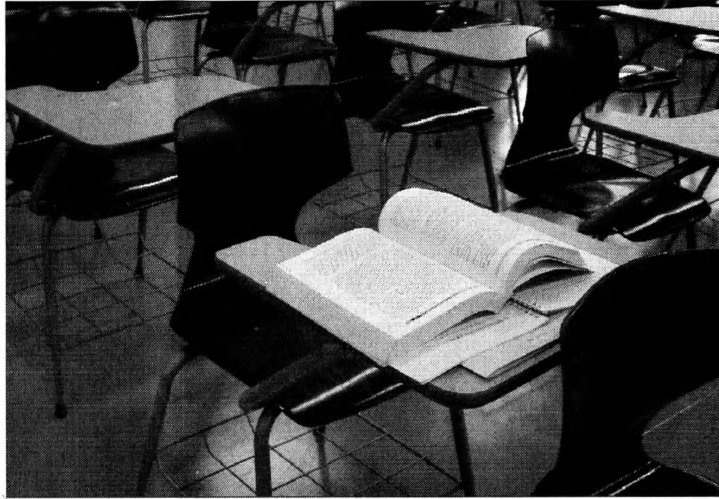
김시연(해양생선과학전공 2)씨도 “책걸상이 불편해 장시간 수업을 받으면 허리가 아프다”며 “의자를 당기면 책상이 같이 움직이고

자리에서 이동하려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는 일체형 책상이 청소 등 관리상 편리를 위한 것이지만 해부학적으로 편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연구된 바는 없지만, 모든 학생이 하나의 책걸상 사이즈에 몸을 맞춰야 하므로 몸에 좋지 않다”며 “책걸상을 구입할 때 거리조절과 학생의 자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체형 책걸상은 사라캤과 스를 비롯해 인문대, 사범대, 해양대 4호관 등에서 쓰이고 있다. 대부분 오래전에 구입한 책걸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대 4호관은 지난해에 신축됐음에도 일체형 책걸상이 도입됐다. 책걸상 구입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의견수렴은



해양대 4호관에 있는 일체형 책상은 의자와 붙어 있어 거리조절이 안되고 책상 면적이 좁아서 책을 하나만 놓아도 책상이 꼭 찜든다.

없었다.

여인규(수산생명의학전공) 부학장은 “예산 문제와 타 단과대학이 어떤 책상을 사용하는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부학장은 “해양대의 공간이 크지 않아서 70명 이상이 수강하는 강의실은 일체형

책걸상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새 책상을 구입할 때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면 분리형 책상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에너지공학과, (주)엑트 장학금 MOU

2014년까지 5년간 지원

에너지공학과(학과장 박재우 교수)와 (주)엑트(사장 조천희)는 지난 4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ACT Track장학금과 관련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주)엑트는 이번 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만원의 대학원생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회사 발전상황에 따라 장려금액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에너지공학과는 ACT Track을 구성하고 학부과정에서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를 선별해 연구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ACT Track은 (주)엑트와 협의해 구성하되 전문분야인 원자력발전 및 방사선 계측/응용 분야의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한편 국내에서 원자력 관련 학과는 제주대를 비롯해 서울대, 카이스트,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이다.

백중수 수습기자



우리도 이젠 대학생 지난 17일 아라뮤즈홀에서 2010학년도 예비 신입생들이 대학생들 맛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강보배 기자

석주명 기념사업 공론화 확산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주최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소장 김인중)와 석주명기념사업회(회장 이석창)가 공동으로 지난 10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석주명 선생과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를 주제로 30여명의 관계자와 대학원생들이 석주명 선생 타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발표회를 가졌다.

이석창 석주명 선생 기념사업회장은 석주명 선생의 연구업적을 나비연구, 에스페란토어의 보급, 제주학의 연구 등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또한,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의 제주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현선 국립과천과학관 연구관

은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사업, 석주명의 과학기술자적 업적 그리고 석주명 선생과 과학관의 연계를 발표했다.

김인중(생명공학부 교수)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은 ‘석주명 선생 기념사업과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의 발전계획을 현재 연구소 건물의 보수 및 활용, 연구동 건물 신축 연구소 시설 정비 등이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연에 이어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와 석주명 선생 기념사업회의 협약식이 열려 양 기관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중앙운영위 ‘총장선출권’ 요구

등록금 투명공개와 학생참여 보장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가 총장 선출권과 등록금 책정 방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회장들로 구성된 중앙위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성명을 내고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정부의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우선 학생들과 등록금 협상시 신입생과 재학생에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며, 등록금 책정시 학생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 법안에

맞춰 학생대표를 포함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 총장 선출권에 있어서 교수들과 교직원에게만 부여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대학의 3주체인 학생에게도 총장 선출권 부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고리에 가까운 이자율엔 반대했다.

중앙운영위는 성명서에서 “다른 시·도는 대학생 학자금 연체율이 3%대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유독 제주는 6%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주민발의로 추진중인 학자금 ‘주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요구에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정부는 분명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대표인 중앙운영위는 일반아라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지난 18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의됐으며, 각 단과대학 회장, 부회장 및 제주대학교 중앙자치기구 장들이 참여했다.

강보배 기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남해마늘연구소 상호교류협정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소장 식품생명공학과 임상빈 교수)와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소장 성낙수 경상대 교수)가 지난달 25일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생명과학 및 마늘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 양 기관이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상호교류협정을 통해 마늘산업 및 생명과학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협정 체결 후 ‘마늘의 바이오산업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마늘의 합성화합물과 분석방법’ 등 3편의 주제발표를 했다.

백중수 수습기자



재정지원 차질에 로스쿨은 울상

○...절반이 넘는 학과에 여교수가 한명도 없다?

여교수 비율이 국립대 채용 의무 비율을 넘긴 건데, 일부 학과에서는 여교수가 없다 고 아우성.

알고본 즉, 아동·생활복지전공과 주거·가족복지전공, 의류학과, 간호학과 등이 포함된 자연과학대학이나 의과대학 등은 여교수 비율이 각 50%, 40%에 달하지만 전체 학과 101개 중 절반이 넘는 63개 과에는 여교수가 단 한명도 없어.

직급별로 봐도 여교수 비율은 정교수 8.2%, 부교수 20%, 조교수 53%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비율도 줄어.

성 평등을 위해 교수 임용 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듯 하오.

○...재정지원 차질에 로스쿨은 울상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학숙된 재정지원이 제대

로 되지 않아 문제. 지난 2007년 제주은행 등 도내 5개 기관과 했던 업무지원 MOU에서 일부 기관이 지금까지 지원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특히 제주은행은 재합의를 통해 교내 출장소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주대는 로스쿨 내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이상은 어렵다고.

로스쿨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는 게 좋을 듯 하오.

○...빈틈없는 아라뮤즈홀 학위수여식 풍경

학위수여식에 졸업생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

이유인 즉, 졸업식장으로 정해진 아라뮤즈홀 좌석은 450여석인데 반해 학위수여 예정자는 1861명이나 돼 인원의 3분에

1도 못미치고, 그에 따라 학부모나 외빈은 식당 근처에도 가기 어려울지 모른다는데.

주최 측에서는 복직하는 졸업생을 열어보겠다는 취지라 하지만 지난해에도 반복된 문제임에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우리 학과방에 왜 네가?

인문대 학생들은 새 학기에 2개학과 과방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는데.

이유인즉 인문대학 2호관 완공으로 기존 건물인 1호관에 대한 재배치 공사가 이뤄져 2호관에 임시 생활을 하게 된 것.

교수연구실과 강의실 등이 우선 배정돼 학과방이 들어설 자리가 부족했던 것.

지난해부터 계획된 재배치공사인데 이제까지 학생들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소.

제주대 뉴스 클리핑

강민수 교수 한국마연구회 회장 위촉

강민수(생명공학부)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동물자원과학회 한국마연구회’의 회장으로 위촉돼 지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임기간을 갖는다.

강 교수는 현재 마필산업연구센터 소장, 재할송마아카데미 원장, (사)마상무예교육문화연구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경표 교수 전국국교련 공동회장

고경표(교수회장, 무역학과) 교수가 지난 5일 충북대에서 열린 2010년 국교련 정기총회 임원개선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공동회장으로 선임됐다. 고 교수는 금년 3월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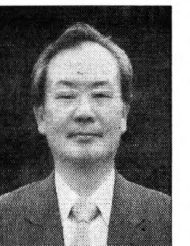
고 교수는 2008년 11월 1일 제주대 제3대 교수회장에 취임해 국교련 감사로 활동해왔다.



김부찬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취임

김부찬(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대한국제법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지난 1953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등목학회로 국제법 관련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학자와 전문가, 공무원 총 6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



이병걸 교수 대한토목학회 부회장 선출

이병걸(토목공학과)교수가 지난 14일 대한토목학회 제48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겸 전국지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전국 8개 토목학회지회의 장으로서 1년간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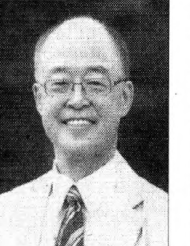
한편, 대한토목학회는 회원 수 2만 3000명 규모로 서울시 부시장, 삼성건설 전무 등 10여명의 부회장이 활동 중이다.



조성운 교수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취임

조성운 교수(사회학과)가 제52대 한국사회학회 부회장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취임했다.

한편 한국사회학회는 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 전문적 지식교환을 목적으로 학술연구사업,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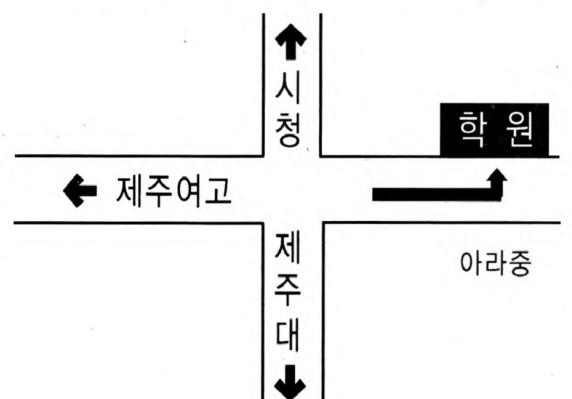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 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54회 학위수여자 명단

박사

법학과

송서순 법학박사

학위논문명
外國人勤勞者 雇傭制度의 憲法的 含意

원예학과

김영걸 원예학박사

학위논문명
차 품종별 생육 성분 및 녹차가공 특성

행정학과

한윤섭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4.3평화교육의 제주지역 개발에 미치는 효과 연구

임정현 행정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CVM과 IO model을 중심으로-

정치외교학과

허호준 정치외교학박사

학위논문명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가건설과 민간인 학살 -제주4.3사건과 그리스 내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학과

최영근 경영학박사

학위논문명
이중물입과 과업수행과의 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의 조절효과

회계학과

정대성 회계학박사

학위논문명
지방세 납세제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

고미영 관광경영박사

학위논문명
고령사회 노인여가정책 모형 개발

김태진 관광경영박사

학위논문명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제주지역의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

조익준 관광경영박사

학위논문명
호텔종사원의 조직 내 신뢰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형태를 중심으로 -

농학과

김지훈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송악의 한반도내 분포와 생리활성 효능에 관한 연구

강경구 농학박사

학위논문명
제주도 표선유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특성과 수질 형성과정 해석연구

석사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강철 이창훈

영어영문학과
정연숙

사회학과
김병무

일어일문학과
한효심

사학과
좌동열 이동현 임승희

철학과
고영채 신지희

음악학과
나맑음 김혜란

법학과
김려은 한정훈 이은주

행정학과
고인종

정치외교학과
전진우

언론홍보학과
고영규

경영학과
이혜인 임해미

경제학과
한정환 정해매

회계학과
현은경

무역학과
조흔 이천

관광경영학과
서광용

관광개발학과
고경업 김영민

농학과
정만석

원예학과
한옥상 이왕석

동물자원과학과
김성미

농업경제학과
김석만

생명공학과
김기천 이희중 정희도 홍현기 이지연 판
녹사오 김하나 강여진

농화학과
전영주

어업학과
양진성

해양생명과학과
장지웅

해양학과
김승현 양승우

환경공학과
백동명

토목해양공학과
이창선 고정우 김대건 강영민 이창립 윤
현철 안승현 좌용현

수산생명의학과
강선경

해양정보시스템공학과
구태희

생명과학과
고윤철 김무한 신혜선 이세영

화학과
김주희 조은경

식품영양학과
섭완정

수학과
진희란 김혜정

전산통계학과
박금룡

가정관리학과
김면정

의류학과
박눈설미 김보람 진인경

체육학과
강민경 이종인

식품공학과
박재성 양정환 오병돈 추승완

기계공학전공
곽경일 고동관

에너지화학 공학전공
박성식 서항민 마크무도프 이스칸다츠

에너지응용 시스템학부 전자공학전공
김수진 고정범 양봉수

전기전자공학과
변균익

에너지응용 시스템학부 전기공학전공
양완석 감지운 구창호 김석훈

컴퓨터공학
이창영 차지윤

의학과
고동욱 김형준 부해진

수의학과
김경미 전경익

한국학협동과정
윤순희

해양기상학 협동과정
김성훈 오상명

통역대학원

한영과 통역번역학석사
정브니엘

한중과 통역번역학석사
김현숙 문선영 진소연

한일과 통역번역학석사
김경희 안행순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일반행정)
강희자 김성수 김인성
행정학석사(지방자치)
김수병

법학과 법학석사
정승표 양창배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석사
홍경희 임재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고투시아 김경희

국어교육 교육학석사
최희정 김효진 송성택

영어교육 교육학석사
최주미

사회교육 교육학석사
유소영

영양교육 교육학석사
김수미 흥관옥

미술교육 교육학석사
김이숙 김지영 김윤희 김혜경

초등수학교육 교육학석사
김동인

초등사회과교육 교육학석사
강필규, 고정숙

초등과학교육 교육학석사
김승현, 송지영, 이민경

초등실과교육 교육학석사
김완열

초등교육방법 교육학석사
고달호, 김외솔, 문현식

초등영어교육 교육학석사
고은아, 김성희, 김희선, 양효선, 이현지,
조윤주

초등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
진상형

산업대학원

농업생물학과 농학석사(원예학)
고형중 김경산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전자전기공학)
이훈우 장영후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컴퓨터공학)
김유준

건설환경공학과 공학석사(토목공학)
고은효 김용탁 김희준 심재용

건설환경공학과 공학석사(건축공학)
현균출 오창훈

건설환경공학과 공학석사(환경공학)
곽창암 양성택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관리전공 경영학석사
현길화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경영학석사
김대식 고영민 김경철 문호남

관광경영학과 관광경영학전공 관광
학석사
김진희 김동근 강동희 박희진

무역학과 무역학전공 경영학석사
김진배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전공 경영학석사
강시내 김성진

관광개발학과 관광개발학전공 관광
학석사
문재홍 홍원식

학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원석 김복술 김소현 이현정 허승용 현
의정 김수연 강현정 강효진 김승현 김유
미 김진욱 문소연 신선혜 허준영 김소희
이승금 직옥걸 박흥배 위성욱 이윤형 최
민수 현인덕

독일학과
고민정 안미소 임미선

사학과

오현수 고아름 김석범 김중수 이인혜 김급미 이성현 이재욱 좌준석 고은정 고은혜 김하늘 안재화 오미경 장종아 홍창용 현종훈 조형근

사회학과
김민수 한성욱 고진경 최낙현 고민혁 고경필 김현목 김민정 김안나 김은진 방미경 강연지 강은정 고의선 김민선 김민정 김보람 김은주 김은지 김지영 김혜림 박선영 백지은 송유숙 송윤희 양윤정 유엄희 유정아 이경석 이봉남 이성미 이수연 임지영 임창현 정윤순 조순우 함금실 현슬기 현지는 강경호 강동호 김동현 김수선 이하나 현영자

영어영문학과
고지범 강현정 고아라 고현아 김지미 오선경 오지혜 조은지 진혁 현재연 강수진 김민을 맹진영 양미숙 양해주 양혜진 원미경 유별이 정유진 부선희 김연정 류정정 설문정 강인희 고은영 김호정 유미정 이민진 홍혜미

일어일문학과
서지성 박진석 박소현 강수진 고지영 김미란 김미란 김선엽 김선주 박난이 송주희 원일수 유수정 최일 좌윤경 오은화 이지혜 정보람 강준 강지우 김해정 최성숙 문희선

중어중문학과
강진영 고유란 김주영 김학선 문현미 박은진 오현지 임누리 정보연 정지윤 최희홍영신 정나름 고은경 김범 양은주 양혜은 이로미 조은진 박가희 정선우 홍성립 김영지김진복 양형심 이용훈 장선미 조윤숙

철학과
이유나 전호웅 조동철 김동균 김철윤 고봉준 고아름 박지향 백은정 진수현 정순선

동양어문학학과국 국어국문학과
박전식 천창익 고명원 광대영 김혁 허은실 감미희 김대철 김재광 김정아 양원혁 한정용

동양어문학학과국 일어일문학과
박재현 고우정 김지민 김태원 고서영 김지연

동양어문학학과국 중어중문학과
문종호 이재방 현용호 김진아 임형남 현종호

서양어문학학과국 독일학과
부장진

서양어문학학과국 영어영문학과
강원준 오선봉 강나리 김지숙 이재명 홍상표 강하나 오은숙

인문사회학과국 사학과
김익성 강은영

법정대학

법학과
강동훈

법학과(아)
이정주

언론홍보학과
한진용 김윤범 김태한 김현수 허성찬 김태일 윤석호 고광록 고의형 김두영 신예섭 이현구 최성민 김나나 강경연 고명희 박소희 강정금 진실로 고은정 이종학 조아배 구혜희

정치외교학과
강희찬 양치영 김성목 김주현 박지용 하지만 박정민 홍석주 이상섭 강호영 고문종 오래경 오승석 이종률 정보현 고경호 김수정 양광환 김명진 오유민 유수연 정은선 박서영 고경우 박준영

행정학과
김도연 고창주 양용준 김용운 나재경 고창현 김동준 김우철 원용수 한혜정 김경구 강성준 김형준 문승환 윤형준 이수진 이지환 이하영 한성수 현윤림 강성철 강윤영 고수강 고현정 김유정 김지는 배정민 송미경 오경숙 오보람 장이래 정선아 조순래 최수미 최혜영 오은실 김상현 강정렬 고지아 김은정 김현아 김현지 박수진 서진영 양미혜 양태정 윤미리 이다인 이보미 조중석 허경찬 김지아 홍은영 강용준 고영광 김영희 송진주 신선희 현승미

행정학과(아)
고영택 전승우 정철희 김거현 고승혜 문

경은 문혜지 백운영 최태희 강성훈 강애순 김민주 문갑진 안상준 양은정 유철호 윤인노 이승희 이희영 현소영 현수명 김진수

법학부(아)
안희광 오경석 한재훈 김정수 허숙 권영배 김기형 장순애 강기훈 강승호 문영진 송운진 오미진 이경은

법학부 국제법무전공학과
김성현 현상수 최정환 김경용 고희정 김삼상 우선진 강지숙 박은율

법학부 법학전공학과
안성홍 좌성호 부승찬 김광현 이은경 정지열 강수봉 강영훈 김기범 박정웅 윤영훈 이휘경 한권 황창혁 강경민 오정철 강희선 고상보 고승완 김윤호 부상혁 안영진 한재환 현재환 박원기 한재호 김성봉 김지환 박신례 고수연 박은경 안성진 윤혜정 이재희 조아라 진보라 홍보람 김가영 김미미 김보배 김봉우 김애리 김정아 김정은 신정은 양정인 이윤희 장현정 정수현 지미욱 강창호 김수준 문상철 이다미 이수아 임홍성

사회과학학과국 언론홍보학과
이지니 고기람

사회과학학과국 행정학과
김은정

경상대학

경영정보학과
정우민 양덕우 이무훈 강정민 김완철 신다은 장수안 배인숙 김민성 이상무 조유리 부미나

경영학과
김환준 박도현 안진범 노영종 양석진 유철홍 전상률 최재영 양재형 김경민 김동민 김상우 김정남 손우연 좌은택 김기범 고광민 김균환 오성용 유성호 이은호 조권 송진화 차상현 고은영 고민정 김지희 박재현 정지혜 김수연 감미희 고성의 박미란 부지윤 윤하나 조보미 하도연 황현정 이보나카 강규희 강혜정 김은하 나은정 송두원 오정일 김창훈 주수현 김매화 동관남 김경미 이아름 고기철 김명선

경영학과(아)
양형준 김현선 손현주 이정자 김태의 변정미 김택훈 고영건 김민규 남상조 박순택 박원철 신선희 이유미 이혜경 황지혜

경제학과
전형식 강기홍 현민철 고창혁 정원광 고길정 김군민 문지윤 이금정 이승표 임상현 김대현 이윤주 이은미 지광수 이성용 김란희 양인정 김선영 박현화 오지은 이진아 안경웅 문경찬

관광개발학과
구형민 이은경 박서형 김진익 문대환 박수범 이광현 이보향 이재현 이한솔 최용수 홍관빈 강태훈 고성호 김나나 김소연 유승식 이정은 현혜연 고은아 양유정 하소영 차지만 허영하 남현아 양성의 우현숙 정려나

관광경영학과
최선 부병철 강동진 한병준 이돈선 고봉석 고봉성 김동현 조혁 이가령 고경환 이승일 이천희 이한희 김도형 김현희 김혜선 심복석 유은정 김형범 김미임 강진아 강희순 강희주 김미희 김반석 김보경 김선에 송영욱 송혜선 안윤정 양광호 오윤영 현영미 김정훈 강윤희 김정진 김지는 백주영 이재연 천해진 장경윤 황수원 장현정 박창준 이수정 이안나 홍정관 심문정 왕옥욱 강문권 김서희 김중기 김지는 김나은 문경미 범지수 송하나 장진금 한진주 마동민 윤정정

관광경영학과(아)
박상구 정경열 계민수 고철희 김인욱 박근우 변근우 박욱을 서윤희 오광훈 유경석 최상용 김유화 서현호 오은경 이상민 김계환 김둘이 김지희 박여진 오지나 이대는 라진목 이형기 정지현 고은예 김현승 정완호 최홍룡

무역학과
강동훈 고승표 김정웅 오봉준 이용희 이정호 이창현 김기환 김우규 이호진 강정욱 송남훈 신충훈 장용 김지는 박혜민 이성찬 장기욱 강은미 고소연 김은혜 지재은 황정미 감미경 김보람 강은정 김시몬

회계학과
고승균 이창건 김영조 김홍신 문지호 양태영 성철승 강동진 강언필 고원섭 김한진 장수는 최성훈 황재영 정문철 김은혜

문승민 안보람 함현아 허익범 김수현 김하늘 배민혜 송미진 이소정 이연희 허혜숙 조연정 감미주 강은정 고은미 고진주 김소정 김수현 김재화 김지형 노유지 박선우 윤호진 이미애 이하경 임진이 정유미 우윤지 이소현

회계학과(아)
윤숙의 강윤영 강은숙 김미리 김수진 김해영 조진희 최윤희 홍신정 김지미 박석희 오수연 조지현

관광경영관광개발학과국 관광경영학과
김지혜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강태원 고경환 우선희 현재상 고석범 김세호 김현구 김희현 양철석 이재호 박재선 오수미 강선영 김소연 양은심 양지혜 엄윤희 임성숙 정금주 허성보 감미란 김수려 오지윤 이경라

수학교육학과
김형주 홍봉기 김정소 오동율 이윤창 이재동 김수영 강유미 김세원 김진영 박지현 부혜정 윤선아 이은정 정윤주 현택남 김유희 임자연 오미경 김명철 오혜경

영어교육학과
김재홍 김태훈 김은정 강태우 김민경 부선영 손다희 강요람 양선미 홍유경

윤리교육학과
강세영 정명연 임상봉 김민주 백정혜 김민지 문제희 배성희 부혜라 이연주 이은정 장지혜

컴퓨터교육학과
이경식 이우창 고경서 오성호 조윤만 고경성 고재호 김현석 이현수 한희승 이경진 문미경 송지은 조규범 강유리 김민정 안희선 이희남 조재춘

과학교육과 물리교육학과
고경석 고철민 고호진 김상훈 강문정 양주리 최용은 강소라 김양희 양용준 유우석 김지혜 김태라

과학교육과 생물교육학과
박수곤 김경훈 문재인 강병석 김준호 박상규 고라라 이승지 강지연 강혜순 김민형 윤여원 고자영 김동환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학과
송형일 이승용 김태우 김지현 오은숙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학과
임경택 강재훈 박성오 박영민 이효진 문정자 이종찬 오선균 임현아 이주미

생명자원과학대학

산업응용경제학과
강동훈 김지윤 최산 권오주 강원근 김훈석 허근호 양태석 임원철 진은정 김순영 유혜선 이상훈 이지영 김민

생명공학부 분자생물학과
김도영 명정민 이정국 김대건 김수빈 김현아 오지연 강보혜 강은주 김우남 양용재 허미주 생명공학부 응용생명 김철 양운석 이연주 배영지 조창언

생명자원과학학과국 동물자원과학과
안창호 박준형 김광훈 김동우 이지훈 최은철

생명자원과학학과국 식물자원과학과
김기덕 김진호 김창수 김진수 김은석 김지성 송영휘 오치호

생물산업부 동물자원과학과
김별 최나래 한경은 황순희

생물산업학부 식물환경전공학과
오승진 김정현 고윤정 김대실 이종현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학과
정재호 한동현 김현주 오중배 이규리 김지훈 홍영민

원예생명과학부 원예과학과
박성우 염재훈 김성인 김동욱 김성인

해양대학

토목공학과
김현주

해양과학부 토목환경전공과

양원석 홍진혁 강조봉 김명찬 김영배 김태용 양영숙 오형철 유성필 이은석 이종석 정경수 조순빈 강길남 강민수 김경훈 김도훈 김봉철 김석현 김용석 김창균 박태현 양원주 유철훈 현민철 강용준 강성윤 김형진 노용주 변우창 송봉조 우수민 이기천 이창현 이충민 전대호 진정협 고기석 김오름 윤민지 유주영 장연수 김보은 김서리 박지연 신지수 안병호 우주경 진정순 한석문

해양과학부 해양산업공학과
고선우 김태경 정주희 강형범 고우진 고유진 양동규 이성민 이성호 이운길 이정우 조기철 지명규 홍성호 정세범 고경범 김근형 김주호 오재광 지형일 고경준 박진우 이수지 장지영 장혜진 이승현

해양과학부 해양생산과학과
강동철 고민조 김진형 김도남 부성환 한상원 홍준석 강동휘 김동은 김승민 김주선 김창수 김형준 박동민 박성호 부경록 송창영 이재소 이종훈 이태민 임강석 장익수 최병훈 한영일 강창희 김병훈 김성박건후 오동우 장종률 최지윤 홍석우 김수지 이보란 강은혜 김준호 김현재 김효원 양혜미 조기철 조아라 유영 고영 오충립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고해미 김미선 김미소 김연정 양유경 정연지 강아름 권미영 김미정 김소림 김은영 송하나 양이영 오미영 오혜지 유경미 유지은 윤은혜 이미숙 이지은 조윤주 조하은 좌진아 현가영 박은애 강연지 박신클 송승욱 조아라

물리학과
김성일 나실인 황성민 김광휘 현연실

생물학과
김병와 이영찬 김기환 김미희 양철호 이동언 박소현 최선아 황정순 김주혜 양미연 유웅 조아라 김성훈

수학과
김용환 송영기 백종현 송민수 윤희상 김후남 이진석 문미향 고광필 김태훈 오태인 좌은혜 김민선 김병우 김의영 박원민 류혜선 이재현 오재환

식품영양학과
김아람 강길숙 강수현 강지혜 김혜련 강문정 강슬기 강은혜 강지혜 김미선 김민정 김선애 김선희 김은미 김은지 김진수 도희경 백민지 이지선 정진이 조세미 한아름 허성미 현수희 김정대 윤선화 이재욱 전정은 현성선

의류학과
문원희 김현아 손하늘 이희은 김유라 신주리 오해미 정현진 조승원 최서윤 양지혜 이영주

전산통계학과
박현식 부동식 김상현 신미화 이정수 고민수

화학과
양승혁 장형수 고영우 현동립 김현주 감미애 고하나 김미주 김민지 김보는 김형민 김효경 박미정 신승희 현유재

생활과학학과국 의류학과
김명지

수학.전산통계학과국 전산통계학과
박수경 이정훈 양동우

정보수학.전산통계학과국 전산통계학과
김형준 남우현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황남영 김묘진 김종성 김태호 김현수 김형진 송재홍 이상호 이재노 임재현 꺾지혜 이소라 이지연 최진영 한정진 강영석 강정훈 이광현 이준중 현동근

체육학부 체육과학
송동준 한지연 박성승 박철형 고완주 김한샘 정소연 하혁 김기문 김세웅 정용길 김빛나 김영미 박주수 송영현 오영택 오진욱 유납주 정선아

생명과학.화학학과국 생명과학과
김민정 현승환 강진혁 고해성 이소담 방정수 박경열 강다래 김경희 김주혜 전아림 좌은진 고란영 조은민 현설아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고태준 양창희 이슬기 김동명 양재표 현지혜 고경환 강유라 장재호 이민희 강금래 고용택 고은정 김경숙 김하나 유은주 이수경 이현정

에너지공학과
최현우 강봉숙 강성훈 강용일 권배혁 신기철 천세민 고준걸 박진호 이성용 현우경 소성한 손동현 모용현 문상돈 강준혁 박민

전기공학과
김익철 김성철 박정원 김도영 김보근 김윤호 부지현 원옴름 홍성배 강남호 강명석 고영호 고윤완 김경근 김경환 김민균 김상석 김성엽 김용범 김은철 김지형 김형철 명호산 변준영 송정협 송훈 양신호 우현철 이동철 이상호 이소식 임정구 조윤형 조현민 한승현 김민성 김봉언 박은준 홍기훈 홍승현 부권일 이지우 임창용 김장범 양수형 양대연 양석환 우두훈 임정범 권선일 강민우 강준호 고영범 황귀남 강명석 김민범 양상혁 이현창 임성민 강민석 고경철 김동연.강소라

컴퓨터공학과
김형우 장정호 문유호 문경보 이용승 양진혁 박태혁 지성혁 양률창 고상용 고창호 고형오 김경탁 김대원 김영자 방재원 배재림 송아람 신두식 오두영 이원주 이은석 정주영 조정민 최호철 한창보 박세환 김지훈 강형구 고수혁 김성규 양우식 양준호 양훈성 임성필 정득길 채호연 한동균 이혜진 강혜정 문수정 백창운 윤경아 장주희 정진우 김현복 에르멘토아 고훈 김창민 박수정 양재석

통신공학과
고은철 양원석 강경보 강봉헌 강용득 고갑수 김동환 김태성 문석효 문정용 진승환 강기훈 강성은 고문봉 김민석 김홍철 김봉석 김현정 김은진 양은정 정보람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조경호 오경남 고은수 허용훈 양인구 오지암 정현영 김성혁 현상민 강경현 강현김훈 오은호 전봉준 이경훈 현승훈 고민정 김수현 김정아 오진경 문혜영 이숙의 강지은 현정화 김용균 김유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고성은 박재현 박정환 윤동현 조성민 김형선 강덕현 강동한 강동훈 김소연 양용석 오진희 아아름 강주영 박은지 이창규 김세룡 강남혁 고기봉 현기욱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강동현 김재동 박미호 오승현 양기필 이득원 이상혁 허수영 허영중 변현재 이윤재 진정윤 이용훈 한형태

기계에너지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학과
강덕훈 고동원 김대영 윤정영 최은준 박종훈 송성태 김동엽

산업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강주형 이승남 조홍일 홍희선

산업디자인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고평주 김영환 박성빈 이동현 이성희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전공
김성용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송동근 한성필 이태훈 임성철 허승 김진숙 박지양 안소현 고주희 김세은 김지영 문희진 정세미 김효주 권봉재 김정훈 유상협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김상호 강영지 김민서 김은지 안혜선 강지연 문연선 신인에 이진희

의과대학

간호학과
윤종혁 이희진 한정희 권효은 김민정 김보람 김소연 박정하 백은승 양미진 오지향 이주연 이현미 임나희 조소현 지혜련 최은미 허정은

의학과
김정현 이완철 김남희 김영욱 남건영 이민현 강진우 강철우 고서영 고혜림 광대영 김두리 김세훈 김승기 김우진 김지영 나건웅 노영호 문신항 문지현 박민식 방형식 범종욱 서강원 석은미 오은희 유준재 윤주희 이강훈 이태호 이영진 이용진 이지웅 전봉희 정재환 정한얼 조국근 조재민 좌은경 최유진 허혁 현상훈 황서은 김라연 이은채 이지현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김경민, 강나래, 권남현, 김승현, 김재형, 김조은, 김준범, 문지현, 변준희, 성수희, 안준범, 우연희, 이정훈

수의학과
곽도현 박민혁 안규영 양원모 한민관 고은주 권현수 김동민 김유환 김중오 김지훈 김현태 박양진 박윤식 박한 박현성 신정웅 양진원 오민규 유상욱 윤정식 이미진 이성현 이재득 이정희 이주연 전성모 정보은 정성용 조유진 최종호 한상진 함정식 박진영 윤진경 이상수

예술학부

서양화전공
김창희 김성현 송용환 황예지 송유경 강하나 권수지 김시는 김유림 변유라 정순주 강금실 김복신 진맹수

조소전공
홍정민 김동규 이지희

한국화전공
고민원 송문정 이종묵 이용석 한향선 백혜림 양정임 이소아 장수지 박지선 이재연

작성피아노 성악전공
김반석 강은숙 양윤정 양동익

작성피아노 작곡전공
백영숙

작성피아노 피아노 전공
강지나 고은주 김성희 김주연 박미소 송희라 이수경 이은형 장수초 김연경 이효희

관.현악 관현악 전공
위문현 강의훈 김보미 송누리 강민정 강진실 김보람 김설란 김지희 양혜연 오소진 유민정 정유경 한지영 고광호

교육대학

윤리교육
김규정, 강우람, 꺾수린, 김수련, 김아름, 박성욱, 박은수, 백완철, 백준기, 원소희, 이미원, 이용선, 이지은, 채인혜, 전영훈

국어교육
손한나, 강경수, 고은지, 권은혜, 김나형, 김보라, 문다예, 문지형, 문철현, 송영란, 양아름, 이상민, 이예슬, 이지윤, 최수욱, 현미주

수학교육
윤현정, 강문주, 고희경, 김수현, 김진영, 박보영, 박재휘, 송안나, 윤희철, 이어진, 전해경, 한유진, 현경식

사회과교육
장새용, 강원준, 고경준, 고아름, 고연희, 고지혜, 김영웅, 김지연, 김지윤, 김현민, 김현정, 김현정, 박영길, 손정혜, 좌상민, 현로사

과학교육
고 명, 고은별, 꺾유진, 김경미, 김대현, 김지영, 박민영, 박새롬, 서정은, 양정순, 이해주, 이현지, 임은진, 정현정, 최영미, 강순기

체육교육
이상철, 감미란, 강성은, 고은상, 권승용, 김바다, 김재준, 김형규, 김형민, 이한솔, 전다영, 전민경, 정재인, 현충훈

음악교육
강지혜, 고서희, 구한별, 김성희, 김용수, 김창환, 문주연, 배수정, 송은주, 양나래, 이여주, 이은경

미술교육
강민정, 김덕용, 김윤정, 김지영, 박인우, 안서형, 윤정혜, 이도형, 정보은, 진효경, 한우리

실과교육
강경민, 강순봉, 강진희, 김동훈, 김혜리, 송선화, 송정은, 양인숙, 양지영, 임보라, 장우정, 한문준

교육학
김봉철, 김수은, 양재영, 이기백, 이승훈, 이윤재, 이지선, 임보아, 정명수, 정진미, 최지연, 황영현

영어교육
김연지, 이성희, 강형지, 권보미, 김규리, 김선영, 김아람, 김유리, 김윤정, 양하영, 윤희주, 이경량, 이민경, 임민진, 최성희

컴퓨터교육
김경민, 강나래, 권남현, 김승현, 김재형, 김조은, 김준범, 문지현, 변준희, 성수희, 안준범, 우연희, 이정훈

■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강정 해군기지' 갈등

강정마을 주민들 “해군기지 유치결정 무효”

‘주민의견 무시한 밀어붙이기’ 여전

해군기지 문제는 수년째 제주의 화두다. 2002년도 화순지역부터 시작한 해군기지 준공과 관련한 논의는 2005년도 위미지역을 거쳐 현재는 강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논의의 결론은 아직도 미지수다. 해군은 마침표를 찍고자 준공식을 강행하려 하고, 강정주민들은 왜 강정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며 막아 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보다 유독 많은 절차상의 논란을 일으켜 왔다. 지역주민의 의사수렴,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존지역 해지 등에 대해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이와 관련한 문제를 법원에서 심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비단 강정주민만이 느끼는 바는 아닌 듯하다. 도민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해군기지 문제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지난해 한라일보와 제주의소리 등 도내 언론사들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 52.3%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응답했다.

해군기지 추진 절차상 논란

주민 의견수렴도 안돼

강정해군기지의 절차 문제는 지난 2007년 당시 강정마을회에서 처음 유치를 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당시 강정마을회의 윤대정 전 회장은 강정주민 1500명 중 87명만을 모아두고,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유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뒤 박수로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당시 마을총회가 열린다는 것은 단 한 차례만 알려졌으며 윤대정 전 마을회장을 비롯한 찬성과 일부 주민들과 어촌계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대다수의 강정주민들은 그런 총회가 열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었으며, 해군기지가 강정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또한 이 총회에서 화순과 위미 지역의 상황을 조사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민의 의견도 제시됐으나, 묵살됐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 강정마을에 들어와 있는 관광시설인 풍림리조트의 경우, 마

을총회에서 7~8차례에 거친 회의를 통해 동의를 얻었던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더욱 의아한 점은 해군기지를 유치하자는 결정을 하기 한 달도 채 되기 전, 강정의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마을회 주최로 발족했다는 점이다.

강정마을회는 2006년 지정된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고 자문위원으로 20명의 인사를 위촉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마을회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갑작스레 해군기지를 유치하자는 결론을 내어 통과시킨 것이다.

불투명한 여론조사 정책 반영

94% 반대 주민투표는 참고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해군기지 문제는 도와 해군의 적극적인 행보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도는 2007년 5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만든다며 화순과 위미, 강정지역의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도 불투명한 절차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는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인 갈매에서 여론조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결국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하기에 이른다. 도의회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다수 지적했다. 도의회는 행정절차의 기본인 위탁 계약서류가 존재하지 않은 점, 공무원 마음대로 1억원 가량을 임의로 구두계약한 점, 근본적 가치가 없을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점을 가진 조사방식 등의 문제를 들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의회는 해군기지를 추진하기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 측에서는 이러한 도의회의 감사에도 해당공무원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도의회도 결론적으로 미약한 행정조치만을 내리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준 셈이 돼버린다.

이에 반발한 강정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의사를 검증하기 나선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2007년 8월에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마을 사람의 94%는 해군기지 반대표를 냈다”며 “당시 투표에는 대천동(신시가지, 월평마을, 강정마을 등)이 포함되는 행정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2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기공식이 중단된 강정천 부근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

구역)이 아닌 순수 강정마을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마을회에서 실시한 투표 결과는 강정마을에서 부재자를 뺀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군기지 반대가 6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모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김태환 도지사와 해군 측은 이 결과를 단지 주민들의 의견으로만 참고할 것이라 밝히며, 효력 있는 자료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절차상 문제는 최근까지도 계속됐다. 강정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제주 지방변호사회 등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절대보전지역 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도에 계속해서 제기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도가 국책사업을 위한 보여주기식 절차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윤용택(철학과 교수) 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와 해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뚝새의 서식지를 확인 한 후에도 정밀한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며 “공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밝혔음에도 결국 발견된 곳만을 보존하겠다는 짧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도 환경영향평가와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같은 안전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는 등 날치기 미디엄을 모방한 비민주적 행태를 따라하며,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공식 강행 주민 항의하자 공권력 투입

행정소송 결과 때까지 기공식 중단

해군기지 준공 준비는 강정에서 결국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해군기지 기공식 준비를 강행하던 해군과 강정주민들이 마찰을 빚었다. 공사작업을 시작한 해군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50여명은 경찰에 강제 연행됐으나,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리를 받아 석방됐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현재 해군기지를 준공하기 전에 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해군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9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총 3건이 있다.

현재 기공식은 중단됐다. 긴박했던 강정의 상황은 현재 조금은 차분하다. 그렇지만, 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해군과 절차상 다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강정주민 간의 긴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종건 기자

인터뷰-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해군기지 때문에 마을공동체 갈라져”

공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 규정

-강정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문제는 해군기지 추진이 국가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2007년 주민투표 결과 마을사람 중 94%는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물론 일부는 힘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평화를 지키려면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중국이 코앞에 있는 제주에 군사기지를 만들면 중국도 분명 군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소모적인 군비경쟁만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강정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존지역이며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다. 보전가치가 높은 강정 바다가 전부 파괴될 것이다. 또 강정의 지형은 바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코지인데, 이곳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동서 조류의 흐름을 방해해 주변 해양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다.”

-현재 마을 상황은 어떤가?

“서귀포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해군기지 문제 후 강정 주민 40%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여전히 주민들은 생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갈등으로 인해 지역이 완전히 와해됐다는 것이다. 삼촌과 조카가 싸우고 친목단체가 거의 사라졌다. 해군기지 찬반에 따라 제사나 명절을 같이 보내지 않기도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공권력의 제도적 폭력에 의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국가사업인가? 국가사업에서 나라와 주민은 의견을 공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말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마을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주민의견수렴과 입지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 투표율이 낮게 나왔다. 무엇 때문인가?

“이번 주민소환은 이승만 정권 당시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했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 투표 당시 마을 책임자들이 투표장 앞을 지키며 주민들의 투표 여부를 감시했다.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을 이루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물론 이유가 아니라도 투표율이 안 나왔을 수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투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의는 있다. 앞으로 이렇게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권력만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민소환 될 수 있다는 모범 사례가 됐다.”

-해군기지 문제를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많다.

“강정주민들은 거대한 정부와 싸우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힘이 없다. 안타까운 게, 힘이 돼줘야 할 지식인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힘이 바로 민초와 학생들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린 4.19혁명도 학생들이 주도했었다.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다.”

-해군기지 문제, 전망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승소한다면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한다. 만약 패소하더라도 투쟁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해군기지가 강제로 강정에 들어온다면 주민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인센티브를 배려해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배웠으면 진작 합의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강정이 평화롭고 자연 그대로인 마을로 남기를 원한다. 적어도 마을 밖으로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고용희 기자

돈보기-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후 학자금 상황 저소득층 학생 부담 급증

재학생 B학점, 신입생 수능 6등급 넘어야 지원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가 1학기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주대에서도 신입생 중 300여명이 ICL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했다. 신입생은 ICL을 통해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재학생의 경우 기존 학자금 대출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ICL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ICL이 어떤 대출인지,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L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 학자금 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은 대출받은 학자금을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겼을 때 갚아나가는 제도다. 때문에 대학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다.

또 일반 학자금 대출은 4천만원(4년제 기준)의 개인별 등록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ICL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 이점이 특징이다.

신청조건은 가구 소득이 7분위(연 소득 약 4천839만 원)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이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한 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일반 학자금대출은 C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지만 ICL에서는 기준이 강화됐다.

또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는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납부를 유예하고 이를 전역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했지만 ICL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최대 25년이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등록금 3200만원을 빌린 남학생이 군복무 기간과 취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입학 시점부터 7년 후 취업을 하고 3년 동안 이 대출금을 분할 상환했다면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 4900만 원을 갚아야 한

다. 유학생은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및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상환을 하면 된다.

파산할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금은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으로 상환개시 여부가 결정되지만 상환 의무는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대출 약정에 명시된다.

그러나 ICL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5.7%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 이자에 따르는 부담이 크다는 점과 남학생의 경우 군 입대 기간이 재학기간에서 포함되지 않고 상환기간에 포함돼 군대를 다니는 동안에도 이자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평균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성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내신과 수능 6등급 이상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 재학생과 신입생이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현철(전기공학 4) 총학생회장은 “공공적 성격이 짙은 학자금 대출에 5.7%라는 높은 이자와 복리이자라는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며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왼쪽)은 원석이 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조례 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민주노동당

3% 이내로 인하하고, 이자 계산방식을 단리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점제한이나 성적제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진(영어일본 1 휴학)씨는 “병역이무를 이행하는 학생들은 군 면제자나 여성보다 취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학자금 이자마저 부담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군복무 기간에 이자 문제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군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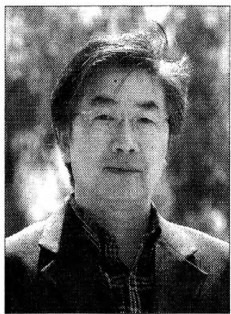
무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는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이자 면제는 어렵다는 답변을 해 군 복무자 이자 면제에 관한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studentloan.go.kr)이나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확인하면 된다.

강보배 기자

무론유설

졸업생에게 띄우는 격려 메시지



김두철 자연대학장

졸업생 여러분들의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입학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캠퍼스에서 보낸 시간들은 주마등처럼 지나가버렸을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학과를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의하여 여러분의 졸업하는 학과를 선택하였을 것이다. 입학동기는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전공을 가지고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있다.

대학에서 보낸 시간은 여러분을 몰라 볼 만큼 성장시켰고,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꾸준히 준비한 사람은 취업까지 보장을 받고, 준비된 사람의 여유를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다. 끝과 시작은 같은 시점에 있다. 이제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관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효과적인 패러다임을 가질려면 세상을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높이고,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같은 사물도 보는 시각에 따라 행동하는 양상이 달라지고, 그 결과에 많

은 차이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실타래를 풀 때도 한번 엉킨 실타래는 풀어나가기가 정말 어렵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지배가치를 정해야 한다. 그 지배가치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공하며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는 주도적인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미지의 먼 길을 찾아가야 하고 가정은 해보자. 길을 찾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반과 시계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계와 나침반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가 확실하다면 아마 빨리 가는 것 보다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거둬들여 된다. 일

찍이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다"고 했다. 내 인생의 개인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어 나가고, 그 성품이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제 4년 동안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방출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앞으로 배워야 하고, 얻어야 할 것도 많다. 세상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할 값어치가 있으며,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관이 부여되고 도전에 대한 결과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삶의 진리라 본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성공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만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돌하르방

해군기지, 지역주민 갈등부터 풀어야

지난 12일 해군기지문제를 취재하기 위해 강정마을을 찾았다. 마을은 조용히 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절맞이로 북적거려야 할 마을이 조용하자 괜히 스산한 바람만 더 부는 듯했다. 강정천 주변에는 해군기지 착공준비가 중단된 채 남아 있었고, 공사벽과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그 앞에는 '해군기지 결사반대'라고 쓰여진 깃발과 천막을 걸고 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자리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아마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았다.

강정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문제가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찬성과 반대라는 구호로 나뉜

한 마을 내 주민들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주민은 현재의 상황이 과거 43사건 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나가다 이웃을 만나도 해군기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서로에 대해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의 경조사와 같은 공동행사들도 찬반으로 분열된 상태로 치러진다. 친목회와 동창, 선후배가 사라지고 있다. 오로지 찬반이라는 잣대로 사람들은 분열돼 버렸다.

설을 맞아 치러지는 신년하례회라는 마을의 중요 행사도 반대 측 사람들만이 모인 가운데 간소하

게 치러졌다고 한다. 결국 해군기지문제가 마을 사람들 간에 전통은 잊게 하는 벽을 만들었다. 400년 넘게 평화롭게 지내던 강정마을이 난데없는 해군기지 문제로 마을공동체 붕괴의 위기까지 맞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라는 국가사업에 따라오는 파장은 대단한가 보다. 먼저 흥역을 거뒀던 화순과 위미 지역에도 이런 지역민간의 갈등은 풀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해군기지 문제는 어떻게든 결론에 다다를 것이다. 결과가 어찌됐든 현재 가장 큰 피해자는 강정주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은

누가 해야하는가. 정부와 군, 도시사와 정치인들은 이미 강정주민들을 잊은 듯 하고, 해군기지라는 너무 오래된 한 이슈에 도민들도 점점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듯하다. 누구를 위한 해군기지인가. 국가와 도를 위협할까. 지역민들을 갈등에 몰입으로 몰아 넣고서 얻은 이득이 과연 실용적인가. 해군기지로 동북아 평화는 지키고 강정의 평화는 문외시 하는가.

지역민을 고려 않는 도의 발전과 국가 발전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해군기지가 어떤 이익을 해주민들과 국민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 정당한 희생인지 묻고 싶다.

박종건 편집장

독자기고

좌충우돌 어학연수 체험기

1학년 겨울방학, 나를 포함한 30명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다. 어설론 영어 실력과 연수단 대부분을 몰라라 불안했지만 결국 1월 9일 우리는 미국으로 출발했다. 처음 와보는 미국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따뜻하지만 건조한 날씨, 친절하지만 사람을 처음해보는 영어수업과 기숙사 생활, 모든 것이 새로웠고 즐거웠다. 라벤스티에 도착하고 나서 기숙사를 배정받은 다음 날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클래스 안에서는 한국어의 사용이 금지됐다. 처음 들어보는 영어수업이라 긴장하고 있었는

데 다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줘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수업과는 좀 다르게 발표나 토론식의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매일 내주는 숙제도 하다가 보니 익숙해졌고, 무엇보다도 SSP를 담당했던 Leah가 정말 친절해서 좀 더 빨리 익숙해 질 수 있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이 정말 짧게 느껴진 적이 많았다. 게다가 Leah가 소방서 견학과 특강까지 받게 해주어서 영어를 즐길 수 있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교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남은 시간은 우리의 자유시간이었다. 그래서 평일에 수업이 끝나면 ELS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나가곤 했다.

주말에는 디즈니랜드나 그랜드캐니언, 라스베이거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말로만 들어보던 곳에 직접 가서 돌아다닐 때의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닌 미국이었기 때문에 어디 나가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당연히 영어를 써야 했고,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영어로 질문해야 했다.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갔던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빨리 익숙해졌다.

한편, 30명이 같이 갔던 연수에서 기숙사 생활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혼자 한국인



김이슬 경영 1

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미국에서의 적응이 한결 쉬웠던 것 같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게 느껴져 아쉬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이 한달 동안 우리는 영어에 대한 공포증을 조금이나마 떨쳐버릴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준 제주대학교와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손아영 영어영문 2

합니다. 물론 당장은 고된 시간이지만 지금 준비하는 시간들이 마음의 체력이 되고 그 체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떠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졸업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란다.

사설

졸업, 새로운 시작의 의미

올해도 졸업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졸업 후 뒤돌아행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왕왕 일어났던 문제가 이제는 중학생 졸업식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입시 과열이 고등학교에서부터가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의 중학교 입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 청소년시기의 왕성한 에너지를 분출할 기회가 없어 나타나는 기현상이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당당히 G20에 편입되고 그것도 증진그룹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모의 교육열정과 치열한 입시 경쟁속에 육성된 우수한 인재덕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대학 캠퍼스 졸업 풍경을 보노라면 어렵게 입학한 4년 대학생활의 틀을 벗어나는 해방감의 절감 보다는 당장 졸업 후 취업이라는 현실문제 때문에 오히려 참여율도 떨어지고 조용하고 암울한 졸업식을 목격하게 된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식을 참여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졸업의 해방감을 표출하는 뒤돌아가 캠퍼스 어귀에서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 우리와는 반대로 고등학교 보다는 대학에서의 졸업식 행사에 졸업생들이 더욱 거칠게 표출되는 것이 눈에 띈다. 아마도 고등학교 생활보다는 대학에서의 학업이 더욱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것이며, 졸업 후 '학생' 신분이 아닌 사회인으로의 첫 출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함이라 해석해 본다. 영어에서 졸업은 'graduation'이란 단어를 주로 많이 쓰고 졸업식은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대학으로 혹은 취업을 하여 사회로 첫 발을 내딛고 대학생은 경제적 독립을 단보한 사회인으로 혹은 더 깊은 학문 진전을 위한 대학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출발점인 것이다.

졸업과 함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기대와 흥분으로 시작하지만 정작 몇 달이 못되어 방향이 시작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어려움을 겪는 수가 왕왕 생긴다. 신입사원은 좋은 학부의 성적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입사했으나 이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차원에서 훌륭한 인재를 뽑았으니 신입사원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져 회사는 신

입사원의 현장 실무능력이 떨어져 실무적응을 위한 신입사원 훈련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의 실무교육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한편 대학은 이에 대하여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에 드는 자원 부족과 학문을 지향하는 상아탑안에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나 등 다양한 원인을 내세운다. 그 결과, 기업체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선호하는 풍토를 만들고 더욱 어려워진 대학 졸업자의 신규 취업은 '전공-일자리' 불일치 사회 현상을 부추여 기업과 산업체의 '불만족'을 극대화시켜 결국, 신규 인력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정부·학교·학생이 할 일

이러한 고용 환경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산·학·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여, 대학 4년 동안 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의 현장 체험과 필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적 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산·학·관이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전공·적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직업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전문 인력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직업 준비를 상담·지도하고, 학기 중과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인턴제 등의 산학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무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생이 곧 실무에 투입되어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는 자신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을 위하여 대학 1학년부터 자신이 선택한 전공 관련 직업을 인식·탐색하고 대학 2학년부서는 구체적인 직업현장 체험을 통하여 졸업 후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며 취업을 위한 다양한 스펙을 경험하고, 대학 3학년 때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4학년부서는 실제 취업을 위한 구직기술(job-seeking skill)을 익히면서 앞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다.

졸업은 학업과정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작의 의미는 자신이 나아갈 방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근차근 먼저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 전반의 단계에서 먼저 준비한 자만이 성공적인 마무리와 시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미디어 세상읽기

선거 여론조사 보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주요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정치는 여론정치이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여론의 향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높은 적중률을 보이면서 선거보도에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여론조사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있어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가 잘못된 방법으로 현실을 왜곡한다면 오히려 여론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보도는 그 자체가 의제설정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잣대로 쓰인다. 현실에 대한 '우리 머릿속의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해 내기 때문이다. 특히 일간지나 지역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다시 여론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이 결과의 함해에 따라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지지가 쏠리는 '승자편승(bandwagon)효과'가 다시 문제가 된다.

이처럼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전화조사의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전화조사는 오늘날 선거 여론조사나 시장조사 등에서 신속한 자료수집, 적은 비용, 광범위한 접근성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표집과 자료수집 방법이다. 표집 선정에서 무작위 표집방법은 확률이론에 근거하여 표집오차의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이 사용하는 전화여론조사는 '가정집 전화를 이용한 할당 추출방식'이다. 할당추출은 확률추출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표집오차의 계산은 불가능해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전화번호부 등재율이 지난해 기준 57.2%로

표본추출의 대표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휴대전화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응답률마저 매우 낮아 표본추출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즉 응답률이 낮다면 대표성이 확보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해야만 한다.

여기에도 전화 매체의 특성상 가정주부나 노인의 응답 비율이 1/3에 달할 만큼 특정계층의 비중이 너무 높다. 2~30대 젊은 유권자들의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표본을 가중치 부여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의 신분을 알수도 없으므로 응답자가 바뀌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는 모두 조사의 부정확성을 높여준다.

다음으로 유권자 성향에 대한 문제다. 전화조사는 전화로 질문을 할 경우 사실을 대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을 일일이 측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의 여론조사는 정책 인식도가 낮고 후보가 부각되지 않

은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 높은 사람이 크게 선호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다시 불투명을 전방이다. 여론조사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집과정과 자료수집 과정에서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언론매체에 보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언론은 조사 설계 단계부터 자료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를 검증해서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분명한 점은 여론조사는 선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로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중해야 함은 물론 언론은 대서특필보다는 작게 보도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정영복 대기자

독자기고

졸업생 여러분 함께 '희망노래' 불러요

꽃샘추위로 두발은 동동거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캠퍼스에 들어온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신입생시절 흑시라도 수강신청을 잘못 할까봐 마음 졸이며 친구들과 머리맡에 댄던 일, 강의실을 못 찾아서 헤맸던 일, 동아리에 가입해서 공부할 하던 기억들이 졸업을 앞두고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많은 선배님들이 졸업하고 나서 학생 때가 좋았다고 할 때 '무슨 말씀?' 하고 속으로 웃었는데 조기졸업으로 남들보다 일찍 캠퍼스를 떠나버린 지금은 오히려 1

년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과교수님들의 수업, 같이 수업 받던 동기들이 그림과,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토의도 더 공부하고 싶고, 유쾌도 다져오고 싶은데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됐다.

많은 졸업생들이 아마 저와 같은 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원하는 것을 당장 얻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처지.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괴로움에 붙잡히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나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생각해보면 대학 4년 동안 힘들

지 않은 적이 없었다. 수강신청을 하는 일도 힘들었고 강의실을 찾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교직이수를 준비하는 것,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 선배사에서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일이 꼭 생겼다. 그리고 그때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 얻은 것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또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이때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 김창인 남해회관 회장 ②

“기업이윤 사회환원 당연한 일”

39세 간경변 아내헌신으로 극복... 약속은 신뢰와 성공의 핵심

발병과 아내의 헌신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에게도 위험한 시절이 있었다. 열심히 일하여 많은 돈을 벌었지만 피로는 자꾸 누적되고 말았다. 그는 철인이 아니었다.

육신에 병이 들었던 것을 알았을 때는 그의 나이 서른아홉. 간경변으로 간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때였다. 의사는 그에게 오래 살 수 없다고 시한부를 선고했다. 앞이 캄캄함을 느꼈다. 그의 육남매 자식들이 너무 어렸고 자신을 의지하는 식솔들이 눈에 밟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병을 꼭 이겨나가야 했다. 간경변에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다 수용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현대 의학, 민간요법에 이르기까지 치유를 위해 좋다는 방법을 다 썼다.

그 가운데 자신을 항상 격려하고 나올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심어준 것은 아내였다. 매일 새벽이면 약 2시간여를 차로 이동하여 간에 좋다는 채소를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로 따다가 녹즙을 만들었다. 그 결과 한 때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던 그의 병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현대의학으로는 나올 수 없으리란 병이 기적처럼 나아 그를 주시하던 주치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건강은 회복되었고 그러한 아내의 헌신은 그를 감동시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돈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되물어본다. 중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고 바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아내인 너희들의 어머니. 어질고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어머니를...중략... 아버지는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정성을 다하였고 심혈을 기울인 현모양처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없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한평생 어머니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도움을 받았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한다.”고 말한다.

수목의 가르침

의사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투병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으로 건너와 갖은 고생을 다하며 돈을 벌던 시절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를 위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나무였다. 그를 위로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나무였다. 나무는 날 마당에 홀로 서 있는 나무였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수목을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갔고 이것이 그의 진정한 스승이 되었다.

그는 수목에게서 겸허함을 배웠다. 어떤 환경에서도 수목은 말이 없고 항상 그대로였다.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에 수목의 존재는 늘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고 있으며 자기 가족과 세상 사람에게 수목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또한 겸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과 실천정신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고향을 찾았을 때, 그의 나이는 49세. 23년만의 고향방문이었다. 자신이 떠나는 시절보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땅과 실음이 많았던 소중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자신의 오늘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과 일본으로 떠날 때의 결심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었다. 그러나 고향방문 중 느꼈던 안타까운 점은 옛 정신이 사라져가고 온 가족이 함께 흘리는 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즉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점점 잊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원리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이라 생각한다.

그에게는 독특한 원칙이 있다. 가족들과 만나거나 식사 등의 사소한 이동을 할 때라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여행을 떠나거나 특정 장소에 전 가족이 모일 때에 가족들은 절대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나눠서 이동하는 것이다.

차남인 김우광씨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같은 차로 여행해보는 것이 소망이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차를 나눠 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함께 할 수 있다. 자동차는 물론이요, 비행기, 열차도 따로 나눠 탄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이제는 생활화되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고 했다.

김회장의 인생철학인 「心」을 읽어보면 가족에 대한 절제와 사랑의 무한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철칙의 키워드

방문 둘째 날, 김회장의 생활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사진이 벌어졌다. 차가 길을 잃어 10여분 정도 지각하게 되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김회장의 목소리는 노기가 등등하였고 만나기를 거부하였다.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가 몸에 배인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늦어진 우리들로서는 약간 야속하게 느껴졌다. 배석한 차남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은 아버지와 약속을 하면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린다고 한다. 어떤 경우라도 만일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너무 꼼꼼함에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철학화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가 이루어 낸 사업의 성공 철칙에는 여러 가지가 키워드가 있다. ‘약속’ ‘현금’ ‘은행’ ‘납세’ ‘부동산 구입’ ‘블루오션’ ‘보종’ 등이다. 그는 약속을 생명이라고 말한다.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것이 신뢰를 놓고 신뢰가



김창인 회장 내외와 손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곧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 거래할 때는 반드시 현금을 사용하고 은행과의 거래를 강조하며 기업가로서 세금 납부에 대한 도덕적 즉, 절대로 탈세해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현실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을 할 때는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창조적 발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런 발상은 ‘남해회관’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일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운명은 스스로 만들고 키워가는 것이며, 노력을 능가하는 어떤 것은 없다고 하고 있다. 돈을 무서워하고 돈에 대한 존경과 가치를 평가하는 그는 돈에 혼이 있다고 말한다. 돈을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써야 하고 돈 자체 보다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정신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르침의 결실

그의 가르침은 후손들의 실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된 삼남

이 병원을 개업하려 할 때 얼마의 돈을 보태려고 말을 건넸던 순간, 삼남은 아버지 말이 끝나자마자 “아버지 마음을 고맙게 받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자식에게 여태껏 오체만족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엄격하게 가르치던 아버지가 자식으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참으로 부끄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했다. 아니, 자신의 실천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이 그를 한없이 기쁘게 했다. 그가 제주대학교에 거액을 기부할 때도 자식들은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아버지의 기부를 통하여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이고 아버지의 정신이 학생들은 물론 사회에까지 전파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부가 인간이 갖추어야 소중한 정신을 살려내는 일에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겸손했고 또한 돈에게도 겸손했다. 액수의 다소를 따지지 않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창익 일어문학과 교수

졸업생 ‘그들만의 이야기’

“취업한파 속에서도 그들의 희망은 영근다”

배는 밤바다를 밝혀주는 등대가 있어서 안전하게 바다를 누빈다. 이처럼 재학생들에 앞을 밝혀주는 등대를 마련하고자 졸업을 앞둔 4명의 학생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졸업생들의 4년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며 박종진 기자가 사회를 맡아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나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 봤다. -편집자주

사회: 대학생활 4년 어떠했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한정용: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해양대를 입학하게 됐는데 적성에 정말 안 맞는 곳이었다.

1학년 때는 학부제다보니 선배들과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과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아는 형이 ‘보통사람들’이라는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다. 또 중·고등학교 때 국어와 글쓰기를 좋아해서 2학년 때 국어국문학과로 전과를 했다. 그런데 국문학과에서 수업을 받다보니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또 달랐다. 그러다보니 과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방향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다. 보통은 2학년 2학기부터 시작 하는데 나는 조금 늦은 3학년이 돼서야 시작을 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수업은 국어국문 수업과는 다르게 내 적성에 맞고, 재미도 있어서 잘 해낼 수 있었다.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동아리나 학교 봉사활동,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하게 봉사활동 경험을 쌓았다.

양은심: 1,2학년 때는 동아리 생활을 많이 했고 3,4학년 때는 과생활을 주로 했다. 그 중에서도 1,2학년 때 동아리 활

동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동아리에서 야간학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때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머릿속에 가장 남는다.

한재연: 원래 국어국문과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내 국어국문에 흥미가 없어 많이 방향을 했다. 그러다 영자신문사에 들어와 활동을 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2학년 때 영어영문과로 전과를 하게 됐다.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해외인턴십을 통해 호주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영자신문사 활동이 대학 4년 동안, 내 중심을 잘 잡게 해줬다. 영자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기자나 출판 쪽으로 진로를 잡기도 했었다. 지금은 진로가 교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자신문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 호주에 인턴십을 갔을 때도 영자신문사 경험을 바탕으로 잡지회사에서 인턴을 했고, 교사 쪽으로 진로를 나간다고 해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신승희: 동아리 활동보다는 과 활동에 집중했다. 처음 1학년 때는 아직 과에 적응이 잘 안 돼서 별다른 활동 없이 학교 수업만 들었다. 그러다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하니 전공에 흥미를 느꼈다. 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보통 다른 학생들은 2학년쯤에 실험실에 들어가는데 3학년 2



지난 11일 제주대신문사에서 열린 졸업생 좌담회. 왼쪽부터 양은심(국어교육), 신승희(화학), 한정용(국어국문), 한재연(영어영문)씨.

학기가 돼서야 실험실에 들어갔다. 그렇게 실험실을 직접 배우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겼고 진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있었다.

사회: 대학 생활을 하며 아쉬운 점과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신승희: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통해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다. 또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교양과목이나 단과대 수업들을 일반전공으로 들어볼 수도 있는데 놓쳐서 아쉽다.

양은심: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해외인턴십이나 해외봉사활동 등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봐서 아쉽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알고 있으면 갈 수 있었던 것을 정보를 못 얻어서 도전도 못해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관심을 가졌다면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놓쳤다가 졸업할 때가 돼서야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알고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후배들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해외로 나가서 좋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한정용: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었는데 잘 알지 못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이 아쉽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도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도 많은 장학금들이 들어오니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장학금 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재연: 과 생활을 제대로 못 해본 것이 아쉽다. 영자신문사나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과 활동을 소홀했는데 졸업을 앞두고도 과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씁쓸하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과 활동에도 잘 참여해서 과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사회: 대학의 의미가 무엇일까? 신승희: 요즘 취업률로 대학들을 서

열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대학을 안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취업이 목적이려면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

한정용: 대학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학과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넓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양은심: 중고등학교는 학교에만 있으면서 사회를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대학교에 와서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를 알아가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회: 졸업 후 앞으로의 계획은?

양은심: 바로 교사로 되기는 많이 힘든 상황이라 보니 인턴교사쪽을 생각하고 있다. 인턴교사를 하면서 교사 임용 시험을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한정용: 사회복지사를 준비 중이다. 올해 3군데에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에서 모두 떨어졌다. 사회복지사 같은 경

우 경력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경력이 없는 학생은 잘 뽑지 않는다. 좀 더 자격증이나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한 다음 9월에 있는 전국단위 재단에 시험을 볼 생각이다.

한재연: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들어간다. 영어영문학과보다보니 교사자격증이 없어서 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또 요즘 많은 교사들이 교육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교사들과 어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승희: 대학원에 들어간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화학과 같은 경우 취업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까지는 다니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사회: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한재연: 학교사이트를 잘 이해해라.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양은심: 과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한다. 요즘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하지 않아 친구가 많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다. 기회가 많으면 많은수록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

한정용: 졸업하기 전에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겨라. 졸업하고 나면 즐길 시간이 전혀 없다. 최대한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겨라. 취업준비도 있지만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

신승희: 양은심 학생이 말한 것처럼 과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과 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교수님들과 친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정보들도 들을 수 있다.

정리=강보배 기자